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4. 6.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공해 조약이 발효되려면 53개의 비준이 더 필요 ..... 3
2. 영국 MPA에서 해로운 저층 트롤 어업의 25%를  
책임지는 선박 발견 ..... 4
3. 美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 대만 및 태국 높은  
순위 유지 ..... 5
4.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회복 ..... 6
5. EU, BBNJ 비준 준비 완료 ..... 8

- 공해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BBNJ) 협약의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각국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준비위원회의 일환으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있음.
- 약 20년간의 유엔 회담을 거쳐 2023년 6월 채택된 공해조약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해양 보존 기금을 늘리며 해양 유전자원을 규제하기 위해 최소 6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함.
- 현재까지 90개국이 서명했지만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함. 공해동맹과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2025년 6월까지 조약을 완전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2024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는 해양 유전자원, 지역 기반 관리, 환경 영향 평가, 역량 강화, 해양 기술 이전 등 조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임.
-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조약 이행에 있어 기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 변화 속에서 공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 관리, 조정된 보존 계획, 과학적 역량 공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제안함.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high-seas-treaty-closing-in-on-entering-force-ngos-urge-cooperation-to-address-climate-change-impacts> ('24년 06월 26일 검색)

- 2023년 영국 해양 보호 구역(MPA)에서 기록된 해로운 저층 트롤 어업 활동이 단 10척의 선박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영국에 신고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음.
- 2023년 영국 해양보호구역(MPA)에서의 해로운 저인망 어업 활동의 25% 이상이 영국에 신고되지 않은 10척의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선박은 의심되는 저인망 어업의 27%를 담당했음.
- 글로벌 피싱 위치 데이터를 사용한 오세아나 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영국 MPA에서 약 10만 시간의 산업 어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3만 3천 시간이 저인망 어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음.
- 오세아나 UK는 정치권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보호에 중요한 해양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저인망어업을 모든 MPA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했음.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80%가 더 강력한 해양 보호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세아나 UK는 현재의 사이트별 제한이 MPA에서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함.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2)<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10-vessels-found-responsible-for-25-percent-of-harmful-bottom-trawling-in-uk-mpas> ('24년 06월 26일 검색)

- 미국 국무부는 최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TIP)를 발표한 가운데, 대만과 태국의 순위를 높게 유지해 이에 대하여 많은 NGO가 비판하고 있음
- TIP 보고서는 각국의 공급망(supply chain)에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가 얼마나 만연한지에 따라 개별 국가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 1등급(Tier 1)이 가장 우수하고 3등급(Tier 3)이 가장 낮음
  - 인권 NGO인 Global Labor Justice(GLI)는 대만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태국을 2등급으로 유지 시킨 결과에 대하여 미국이 양국의 인권 침해를 간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크게 비판하고 있음
  - GLI에 따르면 대만과 태국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고 있어 작년 2023년 TIP 보고서부터 많은 NGO들이 태국 및 대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임을 강조하였음
  - 양국은 원양어선에 제대로 된 Wi-Fi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은 최대 10개월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선원 단체의 아메드 무드자키르 의장은 "Wi-Fi에 대한 액세스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제 노동을 방지하며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태국 법률에 대해서도 태국을 2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3등급 감시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그린피스와 같은 NGO 또한 Wi-Fi 비상용화 등 원양어선의 인권 문제를 문서화하며 대만의 수산물 부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촉구하였음
  - 대만과 미국 정부는 노동자 복지를 우선시하는 무역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음

source : Seafoodsource<sup>3)</sup>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s-latest-trafficking-in-persons-report-maintains-ranking-for-taiwan-thailand-despite-calls-from-ngos>

- 최근 6월에 미국 태평양 어업 관리위원회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관한 최근 자원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음. 결과는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었음. 불과 15년 전 태평양 참다랑어 총생물량은 동 목표의 1/10 그리고 원시 총생물량의 2%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태평양 참다랑어는 아시아 연안 해역에서 산란하고 치어 중 일부가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 연안 해역에서 성장함. 6-7세가 되어 체중 130kg 정도의 성어가 되면 다시 동쪽으로 회유함. 아시아 해역에서 참다랑어는 300-450kg의 성어로 성장함.
- 결과 보고서는 태평양 참다랑어 어업의 역사부터 시작함. 태평양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기록은 1800년대 초부터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나오고 있음. 지속적인 어획 기록은 1950년대초부터 시작되었음.
- 1935년경 어획량이 47,635톤(서부 태평양 36,217톤, 동부 태평양 11,418톤)으로 정점을 찍었고 2차 대전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1956년에 다시 40,383톤 정도로 다시 정점을 찍고 1990년에는 8,653톤으로 감소했음.
- 참다랑어 자원량이 역사적 저점에 이르자 2015년에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업규제가 강화되었음. 그 이후 번식력이 높은 이 참다랑어의 미수와 체장이 증가했음. 이러한 회복은 1세 이하 치어를 목표로 하는 일본 내 어업을 통제한 결과임.
- 조업국 중 일본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어획을 하고 있고, 그 뒤로 멕시코, 대만, 미국, 한국 순임.
- 과학자들은 지속가능한 참다랑어 산출량을 원시 상태 총생물량의 20% 정도로 추정함. 현재의 자원평가 모델에서는 태평양 참다랑어 총생물량을 원시 상태의 23.3%로 추정함. 이는 144,483톤으로 90,000톤과 200,000톤의 넓은 범위 내에 있는 수치임. 이는 어류와 어민들에게 모두 좋은 소식임.
- 향후 국가들은 현재 어법별 한도를 가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 어

획한도가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선망선들이 연말에 조업량을 늘리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님. 선망선 여기에는 참다랑어 어군이 낚시에 반응하는 정도가 약함.

- 현재 멕시코 선망선단들은 쿼터를 빨리 소진하고 있음. 미국 해역에서는 선망선들이 더 이상 참다랑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참다랑어 쿼터를 황다랑어 목표 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수어획을 위한 유보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 참다랑어 쿼터는 2년 주기로 관리되고 있는바, 미국 상업선단들은 작년 쿼터를 상당량 미소진하였음. 작년 미소진량의 일부가 이월되어 올해 어획한도에 추가되었음.
- 미국 상업 채낚기 어민들은 선어 참다랑어에 대해 파운드당 5-6불을 받고 있음.

출처: [www.wonews.com](http://www.wonews.com)<sup>4)</sup>

---

4) <https://wonews.com/recent-assessment-shows-bluefin-tuna-numbers-back-at-target-levels/> (6월 18일 기사)

- EU 집행위원회는 6월 21일에 EU 이사회가 '공해 조약'으로 불리는 UN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정(BBNJ) 체결을 완료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였음. 이날의 결정으로, EU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협정 비준서를 기탁할 준비가 되었음. EU와 그 회원국들은 2025년 6월에 개최되는 차기 UN 오션 컨퍼런스 전에 이를 완료할 계획임.
- EU는 BBNJ 협정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고, 모든 국가들에게 협정 비준을 강력히 장려하였음. 협정은 60개의 비준서가 기탁되면 발효됨. 현재, 7개 국가가 협정을 비준하였고 89개 국가가 서명하였음.
- BBNJ 협정은 지구 면적의 약 절반과 바다의 95%에 대한 공동 거버넌스를 제공할 것임. BBNJ 협정은 공해에 해양보호구역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그리고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임. 현재 공해의 1%만이 보호되고 있는바, BBNJ 협정은 해양보호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공백을 메우게 됨. BBNJ 협정이 적용되는 장소는 생태계 회복 및 자원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곳임.
- EU는 EU 글로벌 오션 프로그램 기금을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협정 이행 지원을 약속하였고 다른 주요 국가들에게도 후원할 것을 요청하였음.

## ■ 배경

- EC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2023년 9월에 EU를 대표하여 BBNJ 협정에 서명하였음. 2023년 10월에, EC는 이사회에 본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음. 2024년 4월에, 유럽 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BBNJ 협정 체결에 동의하였음. 이사회 결정으로, 이제 EU는 BBNJ 협정을 비준할 준비가 되었음.
- 국가관할권 이원 해저. 이곳에는 해양자원과 생물다양성이 있고 인류에게 중요한 생태학적,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그리고 식량안보 이익을 제공함.

하지만, 이곳은 현재 오염, 과도한 착취,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압력에 놓여 있음.

- BBNJ 협정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영향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 현재 공해의 1%만이 보호되고 있는바, 협정은 해양보호에 있어서 현재 존재하는 공백을 메우게 됨.
- 협정은 또한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의 금융적 및 비금융적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 역량 구축 및 개도국들에 대한 해양 기술 이전을 위한 제도 그리고 개도국들의 UN 지속가능개발 목표14("수중 생명") 달성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금을 수립함.
- BBNJ 협정은 많은 기구들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해양 관련 활동들에 있어서 통일성, 조정, 시너지를 증대시켜 공해상 활동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임.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5)</sup>

---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0464&ndb=1> (6월 21일 기사)